



2023학년도 슬기로운 학부모 생활 안내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와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함께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인해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온전하게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생활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과 잦은 다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반복은 학교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학부모님들의 대응 방안에 따라 아이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이 감정의 아바타가 되어 상처받는 부모도 있고, 냉철하게 상황의 본질을 묻고 대응 방안을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벌어지는 아이들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는 누구 한 명의 잘못에서 비롯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고 긴 **아이들 사이의 소통의 서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 사이의 서사를 확인하고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생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까지 쉽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처를 흉터없이 아물게 하는 데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읽어보시고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이가 어렵게 잘못을 고백했는데도 부모에게 된 통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는 **더 이상 부모에게 어떤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은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부모는 영원히 자기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른 채 착각 속에서 키우게 됩니다.

죄책감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느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잘 되지 않는다고 변명하지 않아도 돼”

“사람은 변하기가 참 어려워”

“마음먹은 대로 못 하고 늘 해 오던 대로 돌아가기 쉽지”

“야단치고 싶지 않아. 아빠가 관심 있는 건 변화야”

“못하고 또 못해도 괜찮아”

“바로 그 순간, 과거 잘못을 변호하기보다 달라질 미래를 꿈꾸기 바래.”

-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서천석 지음.

오늘부터 같이 연습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이와의 긍정적인 대화로

자신을 칭찬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건강한 아이로 키워가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7월 3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장